박원자의 母情佛心 32 유튜버 무여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사찰여행 유튜버로 잘 알려진 무여 스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에 심취했다. 결국 19살에 밤새 3000배를 하고 출가했다. 한때 출가를 꿈꿨던 어머니는 딸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길 기도했다.

어머니가 못한 출가, 딸이 이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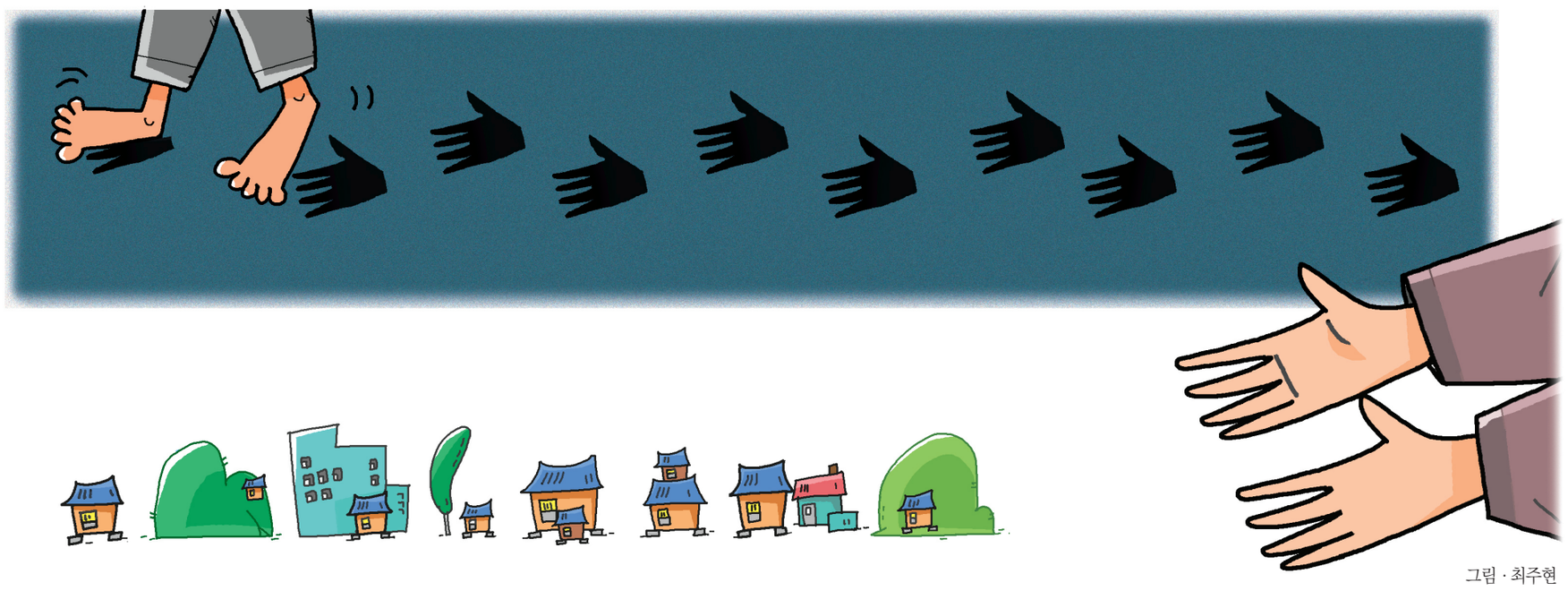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려서부터 불교 심취한 무여 스님
19살에 출가…이젠 23년차 수행자
출가를 마음먹었던 어머니 영향커
신실한母, 지금도 수행, 기도 매진
딸스님 행복한 모습에 모친도 행복

40대 초반의 무여 스님은 불교계에서 알아주는 유튜버다. 3년 전 '무여 스님과 함께 하는 사찰여행' 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120여 개 사찰 기행 영상을 올렸다. 어느덧 구독자 수 3만 명을 넘겼다. 가히 인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다. 큰 키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화사한 관세음보살의 화현같이 느껴진다. 최근에 KBS '인간극장' 에 등장했으니 더 유명세를 타지 않을까 싶다. 유튜브 촬영 제작을 비롯해 대학원 강의, 사찰의 불교대학 강의를 하고 올 가을 포교원 개원을 앞둔 바쁜 일상의 스님에겐 이 모두가 불법의 길이다. 그대로 삶 자체여서 다 소중하고 재미있다. 행복하다.

무여 스님은 19살에 출가했다. 1달 여 정도 주변을 정리하며 집 떠날 채비를 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어떤 생각으로 출가할 마음을 먹었니?"

"불이 뜨거운 줄 알면 불타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온갖 생명들이 섞여 사는 사바세계가 어쩌면 타는 불속보다 더 뜨거운 세계인지도 몰랐다. 어찌 그것을 어린 소녀가 간파할 수 있었을까. 전생의 일임을 알았을까, 어머니는 붙들지 않았다. 딸이 출가의 길을 잘 갈 것이라 확신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한 번 결심한 일은 중간에 포기하는 법 없이 끝을 보았다. 집중력이 강하고 공부도 잘했다. 아버지는 대학이라도 졸업하고 가라며 붙들었다.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이런 저런 경험을 하면서 나쁜 습관(업)을 가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닦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출가해서도 배울 기회는 많을 거고요."

밤새 3000배를 올리고 집을 나서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출가한 뒤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1년 동안은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생각에 잠겨 울곤 했다. 외할머니는 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머리 깎여 중 만들었다"며 딸을 한참이나 보지 않았다. 친할머니는 "세상 사람이 다 중이 되어도 내 손주가 중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며느리를 원망했다. 급한 마음에 어디 가서 물으니, '이 사람은 큰 스님 될 사람이니 뒷바라지나 잘하라' 는 소리를 듣고는 복채로 거금을 주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했다. 기왕에 출가했으니 그곳에서 멋지게 살기를 기도했다. 산다는 게 어디서나 힘든 일이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 을 서원하고 들어간 승가에서의 삶은 사바세계의 고통과는 결이 다르리라 생각했다. 부디 돌아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승가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후원하겠다고.

어머니 자신도 출가를 꿈꾼 적이 있었다. 아기 때부터 울고 보채다가도 불심이 좋은 친정어머니를 따라 절에만 가면 좋아해서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 불교인 줄 알고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그러다가 20대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빌려 본 〈화엄경과 우주의 생명 진리〉라는 책을 보고 불교가 진리를 깨닫는 종교임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고 싶었다. 태안사에 계시던 청화 큰스님을 찾아뵙고 출가의 뜻을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말씀해주셨다.

"전생에 출가자였지만 금생에는 재가자로 역할을 바꾸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살님은 출가하지 않아도 재가자로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당시는 출가를 권하지 않았던 큰스님이 서운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큰스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능인선원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1년 동안의 교리과정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한참 신심이 고조되었을 때 첫아이가 찾아왔다. 내게 오는 생명이 만인에게 존경 받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관세음보살을 벽에 붙여놓고 관음주력을 하는 사이 아이가 태어났다. 날마다 보았던 사진 속의 관세음보살과 닮은 아이였다. 단정하고 예뻤다. 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간호사들이 모두 놀랐다.

까까머리 동자승 같은 모습으로 왔던 아이는 순하고 착하게 잘 자랐다. 집중력이 뛰어났다. 물론 공부도 잘했다. 한참 멋 부리기 좋아할 사춘기 때에도 옷을 사거나 먹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자 경전을 읽어주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해줬다. 초롱초롱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 이거 알아듣니?"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환희심이 일어나요."

아이는 매일 '지장보살' 을 부르며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발원했다.

"무상 대도를 성취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길상사에 다녔다. 엄마가 선원에서 참선을 하고 봉사를 하는 동안 아이는 수련회에도 참석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법정 스님의 책을 비롯해 불교 책을 보고 법문 듣는 것을 지루해 하지 않았다. 절에 가면 제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 했다. 출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길상사 스님들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다고 했다.

〈금강경〉을 읽는 고등학생 딸에게 친구들이 한문책을 읽느냐고 물었다. 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인데도 재미있어 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 자신의 불심도 깊어졌다. 청화 큰스님을 찾아가 실상법문을 들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한마음선원에 가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지평이 넓어짐을 느꼈다. 재가자들도 아침저녁으로 30분씩 좌선을 해야 한다는 청화 큰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좌선이 일상화가 되었다. 새벽 예불 때는 울컥거리며 간절하게 신심이 올라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전생에도 이러했겠구나 생각했다. 두 딸들은 잘 커갔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큰 딸이 출가를 선언하고 집을 나간 것이다.

딸은 행자생활을 할 때 한두 번 집에 들렀다. 말하지 않아도 힘든 게 눈에 들어왔다. 손등이 터져 피가 맺힌 것이 보였다. "고생스럽냐"고 물으면 괜찮다며 하룻밤 자고는 새벽에 돌아갔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이후 출가자 생활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잘 이겨내며 제 길을 갈 것이라 믿었다. 강원을 졸업할 때 오라고 해서 가보니 교육원장상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상은 스님들이 추천해주어야 받는다고 했다. 자랑스러웠다. 딸 스님은 출가해도 배움의 기회는 많을 거라는 자신의 말대로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출가 23년 차인 무여 스님께 물었다. "행복하시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금방 대답했다. "그럼요! 100퍼센트!"

요즘 더 행복하다는 스님께 다시 물었다. "행복이 뭐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어도 그걸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언젠가 지나갈 일이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잘못이 없나하고 관조하는 것이 불교죠. 제가 불교를 만나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남 탓을 전혀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제 자신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관조하면서 살면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어도 행복해요."

"자신의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행복하겠군요?"

"그럼요! 저는 100퍼센트 수용하고 삽니다!"

젊은 무여 스님께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를 물었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인격체로 자식을 대하면 좋겠어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이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재능을 잘 살펴봐서 자식이 원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죠. 부모님들이 수행을 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죠. 그러면 자식을 키우는 자세가 바뀌고 자식이 행복해지겠죠.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한 자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의 어머니 은현순(금강심) 여사는 올해 예순여덟이다. 하루 두 시간 수행자처럼 정진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목욕재계하고 아침 예불을 올린다. 광명진언과 츰부다라니 108독을 한 다음 좌선을 한다. 저녁에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정확히 8시 30분이면 108배를 한다. 〈화엄경〉 약찬게와 법성게를 읽고 츰부다라니 108독을 한다.

그리고 20년 째 같은 자리에서 옷 수선 가게를 하고 있다. 바느질이 꼼꼼해서 단골도 많다.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내 손으로 버는 돈을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 오래 일하려고 한다. 선하고 건강한 남편은 곁에서 세탁소를 경영하고, 언니가 출가할 때 서운해서 많이 울었던 작은 딸은 자식 낳고 잘 산다. 무엇보다 출가한 딸 스님이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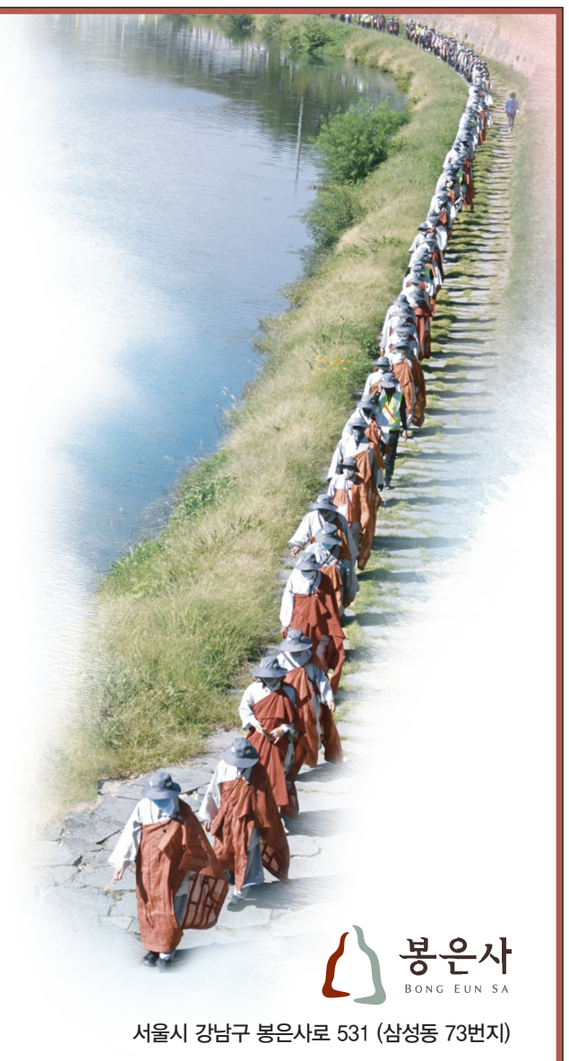
무여 스님이 행복한 이유는 어머니가 이렇듯 행복해서가 아닐까?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면 자신부터 행복하시라!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여기의 현재 상황을 적극 수용해보시길! 그래도 행복하지 않으면 티 없이 맑고 환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전국 방방곡곡 사찰을 기행하며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미 와있다' 고 소식을 전하는 무여 스님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작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